

#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유호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별로 진로선택과 만족 그리고 전공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즉,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계열에 따라서 첫째,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 진로인식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 선호와 활동 참여 요인에서 계열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학습 선호 요인 즉, 전공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전공수업이 적성에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활동 참여 요인 즉, 전공 관련 직업 행사에 참여하거나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진로만족 세부 요인 중 전공 만족 요인과 학과 만족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공적응 세부 요인 중 전공수행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공 집중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전공공부에 대한 집중도는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의 결과로써 진로선택과 만족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월등히 높았으나 전공에 대한 집중은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진로선택, 만족과 전공적응에서는 계열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지만, 진로선택과 만족이 반드시 전공적응에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선택과 만족 인식은 남학생들이 높았으나, 전공적응은 여학생들이 높았다. 다섯째,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학과만족은 고학년일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 한편, 진로선택 및 만족과 전공적응간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선택과 만족이 전공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진로를 잘 선택해서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를 토대로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보건의료전공, 진로선택과 만족, 전공적응

## 1. 서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중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376만7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386만9천명보다 무려 10만2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5.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3년 상반기의 461만4천명보다 무려 5.8%나 줄어든 수치다. 청년층 인구의 인구감소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즉,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경기침체 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경인일보, 2013. 8. 14). 이와 같이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험생들의 진로와 대학 전공 선택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반해, 제대로 된 진로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자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적과 대학 진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학의 이름만을 좇아 진학한 후 그 학과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거나 억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영남일보, 2013. 7. 30). 이는 자녀의 장래 희망이나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로를 선택한 까닭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진로 선택은 학과 전공 적응으로 이어져서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반대로 장래희망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공 부적응 자가 생겨나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즉, 진로의 선택과 만족이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취업률이 높는데(강원일보, 2012. 8. 6), 이는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전문직이고 재취업도 수월하기 때문에 최근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이러한 보건의료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진로선택에 만족하고 전공 적응을 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만족하며, 나아가 전공에 잘 적응해서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험생들이 향후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별로 진로선택과 만족 그리고 전공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지역 4년제 대학교의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는 SPSS 18.0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 1.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만족과 전공적응

요즘처럼 취업난이 갈수록 어려운 때에는 장래 희망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진로선택이 중요

하고, 아울러 전공 적응이 잘 되어야지만, 적성을 살려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란(career) 한 개인의 일생동안의 직업발달과 그 과정, 그리고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수행하는 일의 총체를 의미한다(김충기, 1996: 145). 이러한 진로는 단순히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을 찾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생애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일, 여가, 환경, 심리적 만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김충기, 1996).

이러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은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강화, 모델화, 직접적 강화 그리고 그 단어 및 이미지의 결과로서 선호적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이며, 학력이나 직업수준에 따른 사회적 기대에 대응하는 의식, 태도, 협동 그리고 사고의 총체이다(Krumboltz, 1982; Jepsen, 1974; 이선영, 2009에서 재인용).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은 진로의 인식, 학습선호, 활동에의 참여 등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로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진로만족 즉,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학과만족은 교육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대학에 있어서 그 학과 내에서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와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학과만족과 관련해서는 조직풍토, 학과풍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진희, 2009: 5-6).

학과만족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데, 하나는 감정적 측면(즐거움의 수준)이고 또 하나는 인지적 측면(달성지각)으로, 전자는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 대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움 정도이고, 후자는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하혜숙(2000)은 대학생들의 전공학과와 관련된 만족요인이 무엇이며,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만족요인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 요인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등의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대학생들에게 학과만족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학교만족 요인과 맞물려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학과만족도와 학교만족도를 구별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전공적응을 살펴보기에 앞서,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의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Arkoff, 1968). 여기서 적응의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였는데, 적응은 어떠한 환경이나에 따라 적응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한 영역에서는 잘 적응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는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환경적 압력이 그 개인의 능력과 요구에 적절하며 환경이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는 합치하여 그 개인의 능력은 최상으로 발휘 된다(김용래, 1994: 81).

따라서 전공적응이란 전공을 수행하고, 전공에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우선,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혜숙(2000)은 학과만족도와 학교만족도를 구별하여 연구하였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학과만족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학교만족 요인과 맞물려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이진희, 2009: 5-6). Braskamp & Hengstler(1979)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이용한 연구로 대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이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과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의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의 연구는 첫째, 학과에 대한 만족의 요인구조가 학과 및 학년에 관계없이 안정되어 있으며, 둘째,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들, 예컨대, 성별·전공별·성적에 따라 요인별 학과만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셋째, 교수와 관련된 변인들, 예를 들어 연령, 연구실적 등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로선택 및 진로만족과 전공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덕웅 외(1991)는 대학생의 적응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소속대학 적응, 전공학과 적응,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대학생들의 적응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공이나 학과에 만족도가 높으면 그렇지 못한 개인보다 더 전공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Brooks(1990)는 전공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이 전공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수천(1973)도 학습 선호와 전공적응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적응과 전공만족의 관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Conoley & Conoiey(1991)도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이 전공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진(2011)도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이 전공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진로선택과 만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진로선택,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국내 연구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전공에서는 진로선택과 만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험생들이 향후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별로 진로선택과 만족 그리고 전공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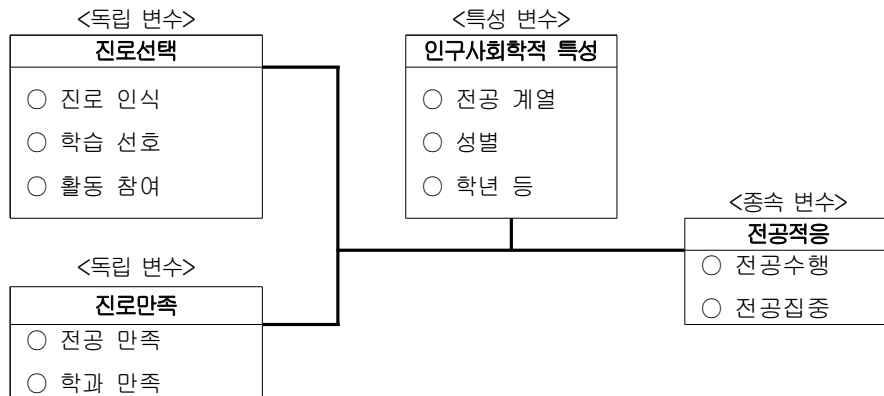
<표 1> 진로선택 및 진로만족과 전공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연구내용
한덕웅 외 (1991)	·대학생의 적응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소속대학 적응, 전공학과 적응,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대학생들의 적응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공이나 학과에 만족도가 높으면 그렇지 못한 개인보다 더 전공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제시.
Brooks (1990)	·전공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이 전공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김수천 (1973)	·학습 선호와 전공적응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적응과 전공만족의 관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
Conoley & Conoiey (1991)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이 전공적응도가 높다고 주장.
박상진 (2011)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이 전공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

### III. 연구 조사 설계

#### 1. 연구 분석의 틀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던, 대학생들의 전공별로 진로선택과 만족 그리고 전공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로는 진로선택(진로 인식, 학습 선호, 활동 참여)과 진로만족(전공 만족, 학과 만족)으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전공적응(전공수행, 전공집중)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 논의가 계열별 차이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까닭에 특성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정하였는데, 전공 계열, 성별, 학년 등이 그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 2.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충청지역 보건의료계열 및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독립변수인 진로선택에서 진로인식 4문항, 학습선호 4문항, 활동참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진로만족에서는 전공만족 5문항, 학과만족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전공적응에서는 전공수행 5문항, 전공집중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8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첫째, 설문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내적 일관성 분석 기법을 실시하였고, 또한 진로선택 및 진로만족 요인 추출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공계열, 성별, 군필여부, 학년 등에 따른 진로선택 및 만족, 전공적응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로 나누어서 각각 진로선택 및 만족과 전공적응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300명(57.4%),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222명(42.4%)로 응답결과가 나왔다.

<표 2> 계열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보건의료계열	300	57.5
	사회과학계열	222	42.5
	합계	522	100.0

다음으로 성별은 남자가 196명(37.5%), 여자는 326명(62.5%)이었다. 이는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남성에게 비해 여학생이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 성별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남	196	37.5
	여	326	62.5
	합계	522	100.0

다음으로 학년은 1학년 25.7%, 2학년 36.8%, 3학년 22.8%, 4학년 14.8%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2학년이 가장 많은 것은 군필 등으로 인한 복학생의 증가로 보이며, 4학년이 가장 적은 것은 취업, 각종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하여 휴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표 4> 학년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1학년	134	25.7
	2학년	192	36.8
	3학년	119	22.8
	4학년	77	14.8
	합계	522	100.0

마지막으로 전공 활동 동아리 수는 1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77.9%로 가장 많았다.

<표 5> 전공 활동 동아리수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1개	334	77.9
	2개	20	4.7
	3개	70	16.3
	4개	5	1.2
	합계	429	100.0

## 2. 신뢰도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설문구성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뢰도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도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 있어서 Cronbach's  $\alpha$  계수가 0.7이상이면 강한 응집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별로 항목을 묶은 후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Cronbach's  $\alpha$ 를 값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요인이 0.6-0.7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lt;표 6&gt; 신뢰도 분석

구분		요인	문항	Cronbach's $\alpha$
독립변수	진로선택	진로인식	3	0.599
		학습선택	4	0.889
		활동참여	5	0.766
	진로만족	전공만족	5	0.847
		학과만족	5	0.781
종속변수	전공적응	전공수행	5	0.784
		전공집중	5	0.787

### 3. 요인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로 나누어서 각각 진로선택 및 만족과 전공적응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진로선택 및 만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추출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와 같이 각각 3개와 2개의 요인으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이후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해 회전을 실시하여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였다.

적재된 요인은 우선, 진로선택은 진로 인식, 학습 선택, 활동 참여의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다음으로 진로만족은 전공 만족과 학과 만족으로 추출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 7>과 <표 8>과 같다.

<표 7> 요인 분석 1

구분	진로선택		
	진로인식 요인	학습선택 요인	활동참여 요인
x01	.800	.070	.346
x02	.721	.130	.377
x03	.631	.146	-.190
x05	.083	.868	.173
x06	.058	.899	.094
x07	.146	.839	.087
x08	.121	.789	.024
x09	.099	.128	.722
x10	.105	-.004	.578
x11	.214	-.123	.738
x12	.026	.187	.774
x13	-.068	.353	.68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성분	회전 제공함 적재값		
	전체	% 분산	% 누적
1	3.124	26.035	26.035
2	2.807	23.395	49.430
3	1.677	13.978	63.407

<표 8> 요인 분석 2

구분	진로만족	
	전공만족 요인	학과만족 요인
x14	.666	.218
x15	.875	.072
x16	.842	.245
x17	.745	.325
x18	.642	.303
x19	.290	.646
x20	.146	.745
x21	.341	.532
x22	.282	.741
x23	.093	.79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성분	회전 제공함 적재값		
	전체	% 분산	% 누적
1	3.198	31.975	31.975
2	2.737	27.371	59.347

4. 차이 분석 결과

1) 계열에 따른 인식 차이

계열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 진로인식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 선호와 활동 참여 요인에서 계열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학습 선호 요인 즉, 전공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전공수업이 적성에 맞는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활동 참여 요인 즉, 전공 관련 직업 행사에 참여하거나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진로만족 세부 요인 중 전공 만족 요인과 학과 만족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공적응 세부 요인 중 전공수행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공 집중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전공공부에 대한 집중도는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의 결과로써 진로선택과 만족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월등히 높았으나 전공에 대한 집중은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진로선택, 만족과 전공적응에서는 계열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지만, 진로선택과 만족이 반드시 전공적응에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계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구분	계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진로선택] 진로인식	보건의료계열	300	3.7033	-.395	.693
	사회과학계열	222	3.7237		
[진로선택] 학습선호	보건의료계열	300	3.0600	5.485	.000***
	사회과학계열	222	2.7117		
[진로선택] 활동참여	보건의료계열	300	3.2925	2.029	.043*
	사회과학계열	222	3.1847		
[진로만족] 전공만족	보건의료계열	300	3.4240	7.474	.000***
	사회과학계열	222	2.9928		
[진로만족] 학과만족	보건의료계열	300	3.5120	6.640	.000***
	사회과학계열	222	3.1784		
[전공적응] 전공수행	보건의료계열	300	3.2080	1.487	.138
	사회과학계열	222	3.1243		
[전공적응] 전공집중	보건의료계열	300	3.1080	-2.951	.003**
	사회과학계열	222	3.2811		

2)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첫째, 진로선택 세부 요

인 중에서는 진로인식, 학습선호, 활동참여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들이 진로인식, 학습선호, 활동참여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진로만족 세부 요인 중에서는 학과만족에서 여학생들에 비하여 남학생들이 학과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셋째, 전공적응에서는 반대로 여학생들이 전공수행과 전공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0>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진로선택] 진로인식	남	196	3.8078	2.948	.003**
	여	326	3.6544		
[진로선택] 학습선호	남	196	3.0408	3.067	.002**
	여	326	2.8344		
[진로선택] 활동참여	남	196	3.3469	2.920	.004**
	여	326	3.1863		
[진로만족] 전공만족	남	196	3.3102	1.708	.089
	여	326	3.1988		
[진로만족] 학과만족	남	196	3.5051	3.847	.000***
	여	326	3.2890		
[전공적응] 전공수행	남	196	3.0255	-3.904	.000***
	여	326	3.2607		
[전공적응] 전공집중	남	196	2.9694	-5.171	.000***
	여	326	3.3092		

### 3) 학년에 따른 인식 차이

학년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에서는 진로인식 요인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진로만족 세부 요인 중에서는 학과만족 요인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하여 진로인식을 더 잘하고 있었으나, 학과만족은 고학년일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1>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진로선택] 진로인식	1학년	134	3.5945	2.665	.047*
	2학년	192	3.7569		
	3학년	119	3.7227		
	4학년	77	3.7879		
	합계	522	3.7120		
[진로선택] 학습선호	1학년	134	3.0019	2.109	.098
	2학년	192	2.9049		
	3학년	119	2.7815		
	4학년	77	2.9740		
	합계	522	2.9119		
[진로선택] 활동참여	1학년	134	3.2910	.966	.408
	2학년	192	3.2240		
	3학년	119	3.2857		
	4학년	77	3.1656		
	합계	522	3.2466		
[진로만족] 전공만족	1학년	134	3.3090	2.516	.058
	2학년	192	3.2927		
	3학년	119	3.1025		
	4학년	77	3.2052		
	합계	522	3.2406		
[진로만족] 학과만족	1학년	134	3.5358	5.684	.001**
	2학년	192	3.3563		
	3학년	119	3.2908		
	4학년	77	3.2390		
	합계	522	3.3701		
[전공적응] 전공수행	1학년	134	3.1627	.014	.998
	2학년	192	3.1760		
	3학년	119	3.1765		
	4학년	77	3.1740		
	합계	522	3.1724		
[전공적응] 전공집중	1학년	134	3.1239	2.141	.094
	2학년	192	3.1375		
	3학년	119	3.2168		
	4학년	77	3.3377		
	합계	522	3.1816		

4)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만족과 전공적응간의 관계 분석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만족과 전공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12>, <표 13>, <표 14>와 같았다. 첫째, <표 12>에서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 진로인식과 학습선호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진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공학습을 선호할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표 13>에서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 진로인식, 학습선호, 활동참여 요인 모두 학과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진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공학습을 선호하며, 전공 관련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전공 대학생일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표 14>에서 진로 만족 세부 요인 즉, 전공 만족과 학과 만족 요인 모두 전공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전공과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 수행 능력과 전공 집중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12>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세부요인과 전공만족간의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1.121	.182		6.178	.000		
	진로인식	.199	.044	.199	4.507	.000***	.852	1.173
	학습선호	.534	.038	.630	14.232	.000***	.848	1.179
	활동참여	.021	.042	.022	.492	.623	.871	1.148

a 종속변수: 전공만족 / b 계열 = 보건의료계열에 대한 케이스만 선택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	0.713	0.508	0.503

<표 13>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세부요인과 학과만족간의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656	.189		3.471	.001		
	진로인식	.237	.046	.238	5.155	.000***	.852	1.173
	학습선호	.214	.039	.254	5.483	.000***	.848	1.179
	활동참여	.402	.044	.421	9.197	.000***	.871	1.148

a 종속변수: 학과만족 / b 계열 = 보건의료계열에 대한 케이스만 선택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	0.678	0.460	0.455

<표 14>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진로만족 세부요인과 전공적응간의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4.752	.225		21.106	.000		
	전공만족	.243	.064	.235	3.814	.000***	.756	1.323
	학과만족	.217	.064	.209	3.389	.001***	.756	1.323

a 종속변수: 전공적응 / b 계열 = 보건의료계열에 대한 케이스만 선택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	0.384	0.147	0.142

5)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만족과 전공적응간의 관계 분석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만족과 전공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15>, <표 16>, <표 17>과 같았다. 첫째, <표 15>에서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에서 진로인식과 학습선택 요인만이 전공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진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공학습을 선호할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표 16>에서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에서 학습선택 요인만이 학과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전공 관련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표 17>에서 진로만족의 세부 요인 즉, 전공만족과 학과만족 요인은 전공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사회과학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과 학과에 대한 만족이 전공에 적응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표 15>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세부요인과 전공만족간의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649	.281		2.311	.022		
	진로인식	.164	.073	.131	2.255	.025*	.786	1.273
	학습선택	.575	.052	.594	11.163	.000***	.941	1.063
	활동참여	.054	.070	.044	.779	.437	.830	1.204

a 종속변수: 전공만족 / b 계열 = 사회과학계열에 대한 케이스만 선택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	0.647	0.419	0.411

<표 16>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세부요인과 학과만족간의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1.666	.236		7.051	.000		
	진로인식	.068	.061	.072	1.112	.267	.786	1.273
	학습선호	.362	.043	.492	8.339	.000***	.941	1.063
	활동참여	.088	.059	.094	1.496	.136	.830	1.204
a 종속변수: 학과만족 / b 계열 = 사회과학계열에 대한 케이스만 선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		0.534	0.286	0.276				

<표 17>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만족 세부요인과 전공적응간의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3.663	.215		17.052	.000		
	전공만족	.099	.061	.132	1.634	.104	.675	1.481
	학과만족	.052	.080	.052	.646	.519	.675	1.481
a 종속변수: 전공적응 / b 계열 = 사회과학계열에 대한 케이스만 선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		0.168	0.028	0.019				

##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별로 진로선택과 만족 그리고 전공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즉,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계열에 따라서 첫째,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 진로인식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 선호와 활동 참여 요인에서 계열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학습 선호 요인 즉, 전공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전공수업이 적성에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활동 참여 요인 즉, 전공 관련 직업 행사에 참여하거나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진로만족 세부 요인 중 전공 만족 요인과 학과 만족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공적응 세부 요인 중 전공수행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공 집중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전공 공부에 대한 집중도는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의 결과로써 진로선택과 만족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월등히 높았으나 전공에 대한 집중은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진로선택, 만족과 전공적응에서는 계열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지만, 진로선택과 만족이 반드시 전공적응에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선택과 만족 인식은 남학생들이 높았으나, 전공적응은 여학생들이 높았다. 다섯째,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학과만족은 고학년일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 한편, 진로선택 및 만족과 전공적응간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선택과 만족이 전공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진로를 잘 선택해서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를 토대로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전공계열별로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만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로써, 그간 다른 전공분야에서는 많이 다루어진 연구이지만, 보건의료계열 분야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이 높다하겠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는 표본 선정이 충청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표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경인일보. 2013. 심각한 청년 실업사태 해법 찾아야. 2013. 08. 14.
- 김용래. 1994. 학습자 변인 상호관계 탐색. *교육연구논총*, 7: 71-110.
- 김수천. 1973. 자아개념 ·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춘천대학교 논문집*, 14: 45-86.
- 김충기. 1996. 한국 진로교육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5: 135-155.
- 박상진. 2011.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영남일보. 2013. 내 자녀의 꿈을 찾아주는 진로 선택. 2013. 7. 30.
- 이선영. 200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및 진로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 2009.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스트레스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전경구, 이창. 1991. 한국 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 생활적응. *학생생활연구*, 5: 3-56.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學(科)學(部)滿足과 學(校)滿足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koff, Abe. 1968.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New York: McGraw-Hill.
- Arnold, J. & H. Bye. 1989. Sex and Sex Role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17:201-207.

Braskamp, L. A., S. L. Wise, & D. D. Hengstler.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494-498.

Brooks, L. 1990. Validity Concerns for Counsellors Using the 1978 Edit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Canadian Counsellor*. 18(1): 5-12.

Jane, C. Conoley. & C. W. Conoiey. 1991. Collaboration for Child Adjustment: Issues for School and Clinic-Based Child Psychologi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21-829.

---

**金裕鎬**: 2010년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지역응급의료 조직간 대응체계 분석, 2010), 현재 국가위기관리학회 홍보이사,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특임이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며, 청주성모병원에서 근무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병원행정, 보건의료, 고객만족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지역응급의료 재난관리공동체 형성을 위한 파트너십 연구(2011)”, ‘보건 행정 및 의료 경영 계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습실태 및 학습기술훈련의 차이(2012)’, ‘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2012)’ 등이 있다(hoho1027@hanmail.net).

투 고 일: 2013년 09월 30일

수 정 일: 2013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13년 10월 25일

##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Health-Care Majors and Social Science Majors –

You Ho Kim

This study tried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ir majors. That is to say,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health-care majors and social science maj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areer recognition among other career choice factors, bu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majors were found in learning preference and activity engagement factors. That is to say,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were more sensitive to learning preference factors than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in that the former were interested in major classes and found themselves fit to major classes, and the former were also susceptible to activity engagement factors as they more frequently participated in major-related job events and club activities than the latter.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mong other career satisfaction factors. That is to say, it turned out that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majors and with their departments.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performance among other major adjustment factor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immersion. That is to say,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were highly immersed in their major work. As for other results,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were much higher in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but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showed higher immersion in their majors. From this, we can tell that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do not necessarily have similar influence on major adjustment though a conjecture in this study was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between the major types. Fourth, as for gender differences, the male students had high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while their female counterparts had high recognition of major adjustment. Fifth, as for grade years, students in higher grade years had higher recognition of career, but had lower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 among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it turned out that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major adjustment in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but not in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It is conjectured that this was because the former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career as they well selected their career, and hence based on this, they were well adjusted to their majors.

**Key words:** majoring in health care, choice and satisfaction of career, school adjustment